

풍작을 기원하는 예술제

그들만의 잔치되지 말아야

외국어대가 바빠졌다. 각 과마다 방학동안 준비했던 예술제나 학술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으로 2회째를 맞는 외대 예술제는 작년과 달리 하나의 통합된 성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각 과마다 노력한 흔적은 엿보인다.

개막테이프를 끊은 불문과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원어연극과 음악등을 선보였다.

대부분의 배우들이 1, 2학년으로 구성된 원어연극은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엉성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학생이고 방학동안의 성과물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잘 만들어진 연극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안내책자가 있기는 하지만 연극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했다. 다음 해에는 극본을 안내책에 포함시키거나 극 중간중간에 대사를 설명하면 더 좋은 연극을 감상하리라 본다.

권대수(우주과학·1)양은 이 연극을 본 후 '내용은 어려웠지만 원어연극이란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이튿날 펼쳐진 chansonniers와 La Bohème의 공연은 가요와 상충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멋진 화음을 연출한 무대였다. 그리고 간혹 틀리는 부분에서는 청중들의 박수소리로 공연

하는 학생들에 힘을 북돋워주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요를 상송으로 번안하여 부른 '한걸음 더'는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이번 불문과의 예술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국어대의 예술제는 행사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예술제는 정확한 전달의 부재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곧 예술제를 치를 중문과나 러어과 역시 주의해야 할 점이다.

〈문화부〉



▲불문과의 연극공연 장면

기득권층의 횡포 고발 영화

영화 (세친구)

새로운 촬영기법 돋보여

〈영화평론가〉
장 석 용

최근 생산된 임순례 감독의 '세친구'는 셋이라는 안정된 숫자가 암시하는 상징성과는 달리 변함없이 한국사회를 억압하는 삼색성(三色城)에 비유될 수 있는 기득권층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는 청년영화의 전형이다.

주인공 세사람 삼검, 무소속, 섬세를 통해 한국 사회의 획일성, 무관심, 폭력을 얘기하고 있는 이 작품은 청년 한국영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시키고 있다.

임감독은 카메라 이동을 가급적 배제함으로써 할리우드와 차별되는 카메라 테크닉을 구사한다.

긴 감정호흡을 통해 영화의 철학적 심도를 높이고 있는 이 작품은 영화와 프레임을 바깥 세계와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콘텍스트이다.

고교를 졸업하고 모두 대학 입시에 실패한 이들은 제도가 만들어 놓은 소외계층을 대변한다.

세친구가 독립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길은 술한 장애물이 놓여있고 이들을 괴롭힌다.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제도와 관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



▲'우중산책' 이후 임순례감독은 '세친구'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고 침몰하는 이들의 모습은 정적 카메라 앵글에 담겨져 아름답기조차하다.

사실 문명정부에 들어와서도 개혁이라는 단어만 존재했을 뿐 개혁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세친구'는 등장인물들이 신인들이어서 영화의 코미디화·식상화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만큼 이 영화는 리얼리티를 확보한다.

'세친구'의 매력은 영화의 단순·담백함 뒤에 숨어있는 영화의 문학과 사회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픽션이지만 사실처럼 가슴아프게 다가오는 '세친

구'는 치밀한 쇼트와 앵글 분석 등으로 카메라에 잡힌 피사체를 부자연스럽게 오려내 친밀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세친구'에서 관객들은 화려한 분위기의 조명이나 동화같은 색깔들을 접할 수 없다.

암울한 시대상을 묘사함에 있어 감상은 금물이다. 그래서 미술도 현장을 포착한 것이거나 사실성의 농후한 공간위주로 설정되어 있다.

화면구성이나 화면구도에 있어서 가공성의 노출은 연출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지만 '세친구'는 여전히 열린영화의 자세를 유지한다.

이 작품은 대기업의 자본을 가지고도 감독이 독립적 영역을 확보하며 작가주의를 표방한 영화이다.

연출된 경직사회는 사실과 다를바 없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상황은 단단한 사회구조와 붕괴된 가정환경의 실체를 확인하게 해준다.

특히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음악은 고스런 현실을 이해하게끔 해주는 코드로 작용한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 세친구의 성장과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등장인물들의 면면은 암울했던 과거와 희망만은 아닌

오늘의 현실의 아픔과 궤적을 같이 한다.

졸업식 장면과 후반부는 해상도에 차이가 있지만 '세친구'는 일관되게 한 종류의 감광도(코닥 필름 52481 아사 100)만을 이용 촬영한다.

임감독의 영화 창작정신은 충무로의 기존 틀을 과감히 탈피 골드러쉬에 미친 감독들을 경고하며 대안영화를 만들어낸다.

임감독은 최근에 보기 힘든 소재와 실험성으로 영화의 '치장성'과 '포장성'을 과감히 해부한다.

'세친구'는 감정몰입을 요구하지 않는 영화이다. 분절과 소외를 떠올리게 하면서 관객들을 하여금 객관적 관찰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세친구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어두운 공간이며 소외지역에서이다.

관객에게 아무하지 않는 영화 '세친구'와 같은 영화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한국영화를 말할 수 없게 만든다.

제1호 서울단편영화제 대상작 '우중산책'의 감독이 그대로 연결되는 '세친구'의 화려한 등장인은 개성이 말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차가운 응시로 바라보고 있는 암울함과 대비된다.

너무나 진솔한 '세친구'묘사 기법은 임감독이 테크니션이기를 거부하는 장인정신을 선포하는 탓일 것이다.

'세친구'의 프레임 분석, 율동과 움직임속에 드러나는 사회상 연구, 영화속에 사용된 영화 언어들은 관객을 위한 노너스로 남는다.

선배님! 요즘 뭐하세요 - 세번째

김세환 동문

가수는 노래로 평가돼야

사생활로 평가받아서 안돼

70년대 가장 인기있었던 가수를 꼽아보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 드물다. 그만큼 인기수명이 적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학교 선배가 있다.

김세환동문(신남·69학번)은 지금까지 서정가요를 중심으로 30여년간 가수의 길을 걷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현재 음악동아리 '바람개비'에 속해있는 송윤희(경영학부 2)양이 참여하였다.

〈편집자〉

이다. 송: 얼마후면 마이클잭슨의 공연이 한국에서 있는데 그에대한 견해는?

김: 공연이 유치되었으면 그 공연은 해야한다. 이미 성사된 공연을 가지고 하지말자고 그러면 그것은 나라방식이다. 그리고 이 공연은 하나의 이벤트성이다.

이: 그러나 그 가수의 사생활이 문제가 되는

데. 내: 요즘 기본 나빠하는 사진 중의 하나가 배꼽만 탄속이다. 이 얼마나 시대 착오적인 발상인가?

웃을 어떻게 입느냐는 개인의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가수는 노래로만 평가받아야 한다.

송: 최근에 가수들을 보면 인기에만 연연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현상을 보는 가수로서의 입장은?

김: 가수에게 인기란 것은 방송사에 있어 껌에 불과하다. 달면 씹고 쓰면 뱉어버리는 껌이 바로 가수의 인기이다. 이: 지금의 음악 흐름에서 섭섭한 점이 있다면?

김: 예전 인기를 끌었던 장르중에 랩음악이 있었다. 랩음악은 우리

나라 음악이 아니라 흑인음악이다. 무조건적으로 외국의 음악을 받아들이는 현실이 아쉽다.

이: 그렇다면 대중가수들이 국악을 하자는 얘기가?

김: 내 얘기는 무조건적으로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 국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조용필씨의 경우 10여년간 팝송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섭렵했다. 그래서 지금의 조용필이란 대스타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 장르의 음악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택해야 한다.

송: 추구하는 음악이 있다면?

김: 나는 지금까지 노래다운 노래를 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지금 잘못되어 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란 노래를 높이 부르거나 길게 연속하여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음악은 서로 다르다. 음정이 높거나 낮은 것은 그 음악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나의 음악기호는 부드럽게 부르는 것이다.

인터뷰: 이택근 기자, 송윤희(경영학부·2)

총여학생회 수요영화제

'제3회 총여학생회 수요영화제'가 지난 11일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으로 개막되었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보다 페미니즘 성격이 강한 영화 10여편이 상영된다.

주요 영화들을 살펴보면 '양철북'의 감독 마가렛 폰 트로타의 '로자 룩셈부르크'를 비롯하여 카타리나 볼름의 '잃어버린 명예'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눈길 닿는 곳마다 대림이 있습니다

둘러보십시오.

생활환경 곳곳에서 국가 기간 산업건설까지 — 57년 역사의 민족기업, 대림이 함께 합니다.

건설에서 기계, 콘크리트, 요업, 석유화학까지 엔지니어링, 증권, 레저산업에 이르기까지 —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 국가 기간 산업건설까지 눈길 닿는 곳마다 대림이 있습니다.

1939년 창업 이래 민족기업 역사 57년 —

사회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업, 대림 21세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림그룹

대림산업, 대림엔지니어링, 대림자동차공업, 삼호, 고려개발, 대림콘크리트공업, 대림요업, 오라관광, 대림홍산, 서울증권, 대한상호신용금고, 대림코퍼레이션, 대림정보통신, 대림문화재단